

“협오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요”

‘양념쳐스튜디오’ 워크숍
차별 경험 자유롭게 공유
9월까지 동네책방 등서 진행

“협오 표현, 속으로 끄공 않지만 말과 함께 터놓고 얘기해보요.” 지역에서 참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양념쳐스튜디오’가 성인지 감수성 워크숍을 열고 있다. 광주여성재단의 현장형 성평등 정책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협오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3일부터 지음책방, 동네책방 등에서 3차례 진행된 뒤 이번에는 16일 오후 7시 남구 양림동 청년인문공간 ‘러브엔프리’에서 열린다. 23일에는 동네책방 숲, 31일에는 ‘공간 자리(ZARI)’에서 열리고 다음달은 ‘송정마을카페이공’에서 예정되었다.

‘협오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생활’ 워크숍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주는 취지로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광주여성민우회 김미리내, 김은지 성폭력상담 활동가와 양성숙, 성현지 작가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은 발표와 자유 토론을 통해 사회적 성젠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차별과 협오가 어떻게 사회구조적으로 일어나는지 알아본다.



지난 9일 광주 동네책방 숲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김미리내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워크숍 뒤에는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페미니즘 소품’을 만들 계획이다. ‘Say No’, ‘그건 혐오예요’, ‘Love Your Body’ 등 혐오에 대항할 수 있는 문구를 참가자들이 직접 고른 뒤 자신의 물건에 붙일 수 있게 했다. 박연숙 양념쳐스튜디오 대표는 “‘슬기로운 생활’ 워크숍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어울림을 경험하도록 했다”며 “참가자들이 혐오의 말이나 태도, 일상에 깊게 고정된 관념과 편견에

따끔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문구를 저마다 새겨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열리는 워크숍 참가자는 구글 폼(goo.gl/forms/FSuNr2poaltC5mFM2)을 통해 선착순으로 10명 모집한다. 오는 31일 ‘공간 자리(ZARI)’에서 열리는 워크숍 신청은 17일부터 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로 간식과 소품 제작을 위한 재료가 마련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워크숍 참가자들이 만든 ‘페미니즘 굿즈’

광주문화읽기



김용태
소설가

결혼을 하고 가장 많이 달린 건 일상을 공유할 상대가 생겼다는 점이다. 아내의 입을 통해 듣는 직장 동료 중에 인상적인 이가 있다. 동료들과 벽을 세우고 철저히 자기 일만 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 자체를 독단으로 세운다는 거다. 그런데 조직에 섞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가 식사시간만 되면 어는새 동료들에게 합류한다고 하니 얼핏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문제적 동료에 대해 말할 때면 아내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난다. 나는 그럴수록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말하려다가도 싸이코패스한 자에게는 약해보이면 안 된다는 사실이 떠올라 주저하고는 한다. 싸이코패스라니. 끔찍한 생각을 이리도 쉽게 하고 마는 나 자신이 과물처럼 느껴진다.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갈등과 오해의

의 본 고장인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스릴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지 오래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스릴러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이들 나라들은 하나같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둔, 대체로 개인소득이 높은 나라들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비상사태 이고 지능적인 범죄가 급증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명의 발달과 스릴러 장르의 발달에 어떤 상관성

현대판 신화, 스릴러

종류도 다양해진다. 우리가 받아온 교육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나 혼자라도 살아남는 생존교육으로 변해온 탓이다. 고립된 개인들이 많아지면서 사사로운 일에도 오해와 불신이 쌓인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타인은 미스터리한 존재이며 그들과 관계 맺는 일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실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없던 시대는 없었다. 광주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달군 학생들의 집단 폭행과 교사의 폭언들에서 드러난 폭력성은 이전의 폭력들과는 다소 양상이 다른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일상은 공포의 연속이다. 타인의 눈에서 분노 혹은 두려움을 발견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특히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는 광범위하면서도 디테일하다. 성차로 인해 발생하는 혐오와 폭력, 정치적 불신에서 작동하는 폭압에 대한 두려움, 익명성의 구조로 인해 작동하는 인신공격, 누군가의 삶을 은밀하게 훑쳐보는 몰래카메라 범죄, 가족범죄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바야흐로 미시적 폭력의 세계다.

이런 시기에 눈에 띄는 예술 장르가 있다. 예술이 이 시대의 단편들을 담은 그릇인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영상물과 문학 장르 등에서 미스터리와 스릴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스터리 스릴러

이 있지는 않을까. 사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 사건들을 소재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현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신화라 한다면 스릴러란 장르의 현대판 신화인 셈이다. 실제 일어나고 있거나 불분명한 실체, 설명되지 않을 수 있는 공포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그 실체를 찾아내는 장르니 말이다. 스릴러란 장르를 예로 들었지만 요는 빠르게 다변화하는 사회에 요구되는 문화예술이란 어떤 걸까 하는 고민이다. 문화예술도 보다 기민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왕 광주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예술성이 깊은 고장이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비해 보폭이 좁다는 인상은 있다. 식자층이라 불리는 이들조차 MeToo 캠페인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고는 한다. 보다 과감하고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예술적, 장르적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원숙하고 노련한 문화예술인들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 문화예술가들이 보다 서로를 알고자 하고 존중한다면 능히 가능할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혁오 다큐·단편영화 기획...주목할 만한 영화들

광주독립영화관 가을 상영작 공개

광주독립영화관 GIFT이 가을을 맞아 다양한 개봉작을 마련했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디밴드 혁오 다큐멘터리가 특별 상영된다. 2014년 데뷔한 인디밴드 혁오는 확고한 음악세계와 탄탄한 실력으로 부동의 팬층을 다지면서 TV예능 ‘무한도전’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이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는 ‘/volumes/Hyukoh_2018_2/2018hyukoh_berlin/project’으로 다소 긴 제목으로 정다운 감독이 실제 작업한 파일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혁오가 베를린에서 새 앨범을 작업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23일에는 ‘오렌지필름 기획전’을 연다. ‘오렌지필름’은, 단편영화 서너 편을 묶어서 매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영화단체다. 배우나 감독의 초기작들을 조명하거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편영화들을 프로그램 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독립영화관은 지난 5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 극장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어는 것을 고풍까요?’ 프로그램에서는 정수식 감독



밴드 ‘혁오’

의 ‘담배를 태우는 방법’, 객민규의 ‘홍콩멜로’, 이윤진 감독의 ‘두현의 입장’을 선보인다. 한편, 광주독립영화관은 독립영화관 활성화 프로젝트를 ‘너와 극장’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2-222-18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엔날레 패스 이름 지어주세요”

코레일 27일까지 공모전 진행

코레일이 1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미술을 테마로 한 새로운 기자여행 패스 네이밍 공모전을 벌인다. 9월 출시 예정인 기자여행 패스는 미술과 전시 관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미술주간 사업인 ‘미술관 가자 캠페인’과 연계한 관광상품이다.

전국 7개 도시의 비엔날레를 관람할 수 있는 ‘비엔날레 통합패스’ 또는 ‘미술주간 패스’를 구매할 고객을 위한 자유여행 패스다.

비엔날레 통합패스는 광주, 목포, 창원,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열리는 모든 비엔날레에 입장할 수 있는 패스이며, 미술주간 패스는 미술주간(10월 2~14일)에 미술관,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전시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입장권이다.

3일권과 5일권이 있으며 정해진 기간 관광 열차를 제외하고 KTX를 포함한 모든 기차의 자유석과 입석을 이용할 수 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점을 선정해 수상한다. 최우수상에는 새로운 기자여행 패스 2매와 비엔날레 통합패스 6장이 수여된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